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추연구, 최효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Focused on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Youn Gu Chu, Hyo-Sik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각 부모 개인 내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의 1,17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스타일과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은 초등학생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공동체 의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도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의 경로계수 크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Previous research shows that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s can appear together in a par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that affect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esteem and a sense of community of children using the data of 1,172 fourth-grade children from the 11th year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study also explored whether any unique characteristics appear in group classifications based on their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mother's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showed a direct effect on the children's sense of community while the father showed a direct effect from both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s. Second, the mother's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her children mediated by self-esteem and a sense of community while the father's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was mediated by only a sense of community.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each parent's parenting style has a distinct structural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Keywords : Parenting Style, Self-Esteem,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Well-Being, SES

이 논문은 2021년 춘천교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June 14, 2021

Revised July 15,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고, 원만하게 학교 적응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부모가 자녀의 행복 및 학교 적응을 지지하지는 못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 간 지지 차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모의 양육스타일이다. 부정적 양육스타일에서 긍정적 양육스타일로의 변화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1]. 부모의 양육스타일은 학업성취[2], 비행[3], 삶의 만족도[4], 성실성[5] 등의 인지적, 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과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인지적, 정적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는데, 선행연구의 한계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 발달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6], 그동안 대다수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지 않거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간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지만[7, 8],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양육스타일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다.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부모의 양육 특성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차이점이 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모델링 및 대리 강화를 유발할 뿐 아니라 애착형성, 정서조절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9]. 자녀가 부모로부터 온화하고, 민감하고, 반응적인 등의 긍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면 자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흑독하고, 엄격하고, 비관적인 등의 부정적 양육을 경험할 때 정서 조절 능력 및 대처 능력 발달이 저해된다. 메타분석 결과는 양육의 질과 아동의 기능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0].

양육스타일(parenting style)은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가치, 신념이며, 부모-자녀 간 관계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11 재인용]. Baumrind(1967)[12]는 부모의 양육스타일을 권위적(authoritative), 허용적(permiss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관련된 반응성(responsiveness)과 자녀를 얼마나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성(demandingness)의 두 차원에 기초한다[13]. 반응성은 정서적 지지, 따스함 등을 통해 자녀의 자기주장, 개성 등을 촉진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요구성은 자녀의 행동 감독, 행동 조절 및 통제 등을 통해 사회에 통합 되도록 만드는 정도를 의미한다[13, 14].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높은 반응성과 요구성,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은 낮은 반응성과 높은 요구성, 허용적 양육스타일은 높은 반응성과 낮은 요구성의 특징을 보인다[15].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의 양육스타일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스타일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위적-권위주의적, 권위적-허용적, 권위주의적-허용적 양육스타일을 함께 보일 수 있다[4].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권위적 양육스타일을 보이며,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16, 17]. 군집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권위적(47.25%), 아버지 권위적, 어머니 권위주의적(15.41%), 어머니 권위적, 아버지 권위주의적(17.33%),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권위주의적(20.01%)의 네 개 프로파일로 구분되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권위적일 때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반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권위주의적일 때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17].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은 가족 기능을 간접 매개로 부모-자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18], 특히 자녀의 학업 성취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스타일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19]. 아버지의 낮은 수준의 지지는 어머니의 낮은 수준의 지지보다 특히 아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3].

부모의 양육스타일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20-23].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4]. 지지, 신뢰에 기초한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자녀의 긍정적 자기 평가를 이끌 수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높인다[25].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자녀의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26]. 어머니와 아버지가 권위적 양육스타일을 보일 때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다[27].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은 자녀의 공격성과 정적 관련성,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

은 자녀의 공격성과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반면,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다[29]. 권위적 양육스타일보다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을 보일 때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이 더 낮다[7]. 부모의 자율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스타일은 청소년의 내재적 삶의 목표를 부분 매개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주도성과 긍정적인 정서를 촉발하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로운 결과를 준다[31]. 자아존중감은 공동체 의식[32],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이다[33-35]. 자아존중감은 자기-용서 및 대인 간 용서를 간접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36]. 또한,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애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를 받은 후에도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빨리 회복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를 받은 후에 자아존중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다[34 재인용].

공동체 및 구성원에 대한 소속감, 믿음, 중요성 인식을 의미하는 공동체 의식[38]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다[39-4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관심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반면[42],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스타일은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양육 특성[44-46]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47, 48]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49], 양육스타일은 빈곤한 가정의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물론 일부 연구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간에 긍정적 양육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1].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점이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11차(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매해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11차(2018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52]. 분석 대상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응답 자료가 있는 1,172명이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603명(51.5%), 여아 569명(48.5%)이며, 아동의 월령은 121개월 7명(.6%), 122개월 125명(10.7%), 123개월 303명(25.9%), 124개월 373명(31.8%), 125개월 267명(22.8%), 126개월 32명(2.7%), 127개월 28명(2.4%), 128개월 13명(1.1%), 129개월 8명(.7%), 무응답 16명(1.4%)이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중졸 2명(.2%), 고졸 311명(26.5%), 전문대졸 338명(28.8%), 대졸 443명(37.8%), 대학원졸 75명(6.4%), 무응답 3명(0.3%)이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중졸 6명(0.5%), 고졸 297명(25.3%), 전문대졸 242명(20.6%), 대졸 488명(41.6%), 대학원졸 136명(11.6%), 무응답 3명(.3%)이다.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s

| Variables | Category | N | % |
|----------------------|-------------|-----|------|
| Child's gender | Male | 603 | 51.5 |
| | Female | 569 | 48.5 |
| Child's age (months) | 121 | 7 | .6 |
| | 122 | 125 | 10.7 |
| | 123 | 303 | 25.9 |
| | 124 | 373 | 31.8 |
| | 125 | 267 | 22.8 |
| | 126 | 32 | 2.7 |
| | 127 | 28 | 2.4 |
| | 128 | 13 | 1.1 |
| | 129 | 8 | .7 |
| | No response | 16 | 1.4 |

| | | | |
|--------------------|-----------------------------|-----|------|
| Mo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ed | 2 | .2 |
| | High school graduated | 311 | 26.5 |
| | Community college graduated | 338 | 28.8 |
| | University graduated | 443 | 37.8 |
| | Graduate school graduated | 75 | 6.4 |
| | No response | 3 | 0.3 |
| Fa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ed | 6 | 0.5 |
| | High school graduated | 297 | 25.3 |
| | Community college graduated | 242 | 20.6 |
| | University graduated | 488 | 41.6 |
| | Graduate school graduated | 136 | 11.6 |
| | No response | 3 | 0.3 |

2.2 연구 도구

2.2.1 양육스타일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을 확인하기 위해 Robinsion 외[53]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스타일 중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된 허용적 양육스타일을 제외한 권위적,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 문항을 활용하였다.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스타일은 민주적 관계(5문항), 애정, 관여(11문항), 친절/편안함(4문항), 이성/유도(7문항)의 4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스타일은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6문항), 화내기(4문항), 처벌(6문항), 지시(4문항)의 4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52].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어머니 애정, 관여 $\alpha = .839$, 이성/유도 $\alpha = .646$, 민주적 관계 $\alpha = .664$, 친절/편안함 $\alpha = .707$, 화내기 $\alpha = .652$, 처벌 $\alpha = .833$,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 $\alpha = .735$, 지시 $\alpha = .532$, 아버지 애정, 관여 $\alpha = .846$, 이성/유도 $\alpha = .721$, 민주적 관계 $\alpha = .699$, 친절/편안함 $\alpha = .725$, 화내기 $\alpha = .659$, 처벌 $\alpha = .826$,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 $\alpha = .734$, 지시 $\alpha = .548$ 이다.

2.2.2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Rosenberg[54]의 척도 10문항 중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한 척도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4점 Likert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④ 매우 그렇다)이며, 문항은 '○○(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등이다[49].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830$ 으로 확인되었다.

2.2.3 공동체 의식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6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5점 Likert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니?' 등이다[49].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825$ 로 확인되었다.

2.2.4 주관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전반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반적 행복감은 총 6문항(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의 4점 Likert 척도, 삶의 만족도는 총 3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반적 행복감 '○○(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니?', 삶의 만족도 '○○(이)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52].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전반적 행복감 $\alpha = .776$, 삶의 만족도 $\alpha = .741$ 로 확인되었다.

2.2.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2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1~10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52].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에 기초하여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645$ 로 확인되었다.

2.3 분석 방법

연구 문제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측정, 구조 모형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최대우도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다집단 분석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순서로 진행하였다[55].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intercorrelations among the observed variables (N=1,172)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58** | 1 | | | | | | | | | | | | | | | | | | | | | |
| 3 | .63** | .58** | 1 | | | | | | | | | | | | | | | | | | | | |
| 4 | .72** | .48** | .63** | 1 | | | | | | | | | | | | | | | | | | | |
| 5 | .26** | .17** | .23** | .20** | 1 | | | | | | | | | | | | | | | | | | |
| 6 | .19** | .20** | .15** | .13** | .61** | 1 | | | | | | | | | | | | | | | | | |
| 7 | .23** | .18** | .27** | .21** | .69** | .60** | 1 | | | | | | | | | | | | | | | | |
| 8 | .23** | .18** | .22** | .19** | .77** | .51** | .67** | 1 | | | | | | | | | | | | | | | |
| 9 | -.43** | -.23** | -.38** | -.51** | -.18** | -.11** | -.14** | -.17** | 1 | | | | | | | | | | | | | | |
| 10 | -.37** | -.18** | -.34** | -.40** | -.15** | -.09** | -.14** | -.15** | .60** | 1 | | | | | | | | | | | | | |
| 11 | -.51** | -.32** | -.44** | -.46** | -.17** | -.10** | -.15** | -.17** | .62** | .60** | 1 | | | | | | | | | | | | |
| 12 | -.14** | .12** | -.16** | -.29** | -.06* | .02 | -.07* | -.07* | .50** | .39** | .39** | 1 | | | | | | | | | | | |
| 13 | -.15** | -.07* | -.14** | -.14** | -.43** | -.24** | -.42** | -.46** | .27** | .27** | .22** | .15** | 1 | | | | | | | | | | |
| 14 | -.20** | -.09** | -.19** | -.19** | -.39** | -.21** | -.38** | -.38** | .28** | .44** | .30** | .15** | .60** | 1 | | | | | | | | | |
| 15 | -.21** | -.11** | -.17** | -.17** | -.50** | -.33** | -.47** | -.47** | .26** | .28** | .35** | .17** | .63** | .62** | 1 | | | | | | | | |
| 16 | -.06* | .02 | -.09** | -.09** | -.13** | .13** | -.18** | -.24** | .20** | .18** | .13** | .25** | .50** | .43** | .45** | 1 | | | | | | | |
| 17 | .11** | .09** | .09** | .09** | .08** | .05 | .06* | .08** | -.05 | -.04 | -.09** | .01 | -.10** | -.06* | -.08** | -.02 | 1 | | | | | | |
| 18 | .11** | .11** | .10** | .11** | .07* | .05 | .05 | .07* | -.05 | -.06 | -.10** | -.01 | -.04 | .00 | .35** | .35** | .35** | 1 | | | | | |
| 19 | .08** | .09** | .07* | .07* | .09** | .06* | .05 | .08** | -.04 | -.02 | -.05 | .01 | -.03 | -.01 | -.02 | .03 | .41** | .65** | 1 | | | | |
| 20 | .10** | .12** | .12** | .12** | .07* | .03 | .01 | .08** | -.08** | -.04 | -.08* | -.01 | -.01 | .01 | .00 | .02 | .33** | .60** | .59** | 1 | | | |
| 21 | .13** | .06* | .09** | .13** | .12** | .10** | .08** | .11** | -.09** | -.06 | -.11** | -.07* | -.10** | -.06 | -.09** | -.04 | .68** | .42** | .45** | .37** | 1 | | |
| 22 | .12** | .07* | .09** | .11** | .09** | .06* | .07* | .09** | -.09** | -.07* | -.10** | -.03 | -.11** | -.07* | -.10** | -.03 | .66** | .30** | .32** | .27** | .64** | 1 | |
| M | 4.05 | 3.71 | 3.69 | 3.75 | 3.74 | 3.57 | 3.62 | 3.73 | 2.59 | 2.01 | 1.98 | 3.14 | 2.43 | 1.91 | 2.08 | 2.98 | 3.50 | 4.00 | 3.80 | 3.79 | 3.31 | 3.52 | |
| SD | .44 | .41 | .47 | .52 | .50 | .49 | .52 | .58 | .66 | .53 | .52 | .64 | .66 | .58 | .58 | .46 | .71 | .78 | .70 | .46 | .49 | | |
| Sk | -.19 | -.01 | .10 | -.04 | -.13 | -.16 | .05 | -.14 | -.01 | .34 | .61 | .01 | -.12 | .49 | .51 | -.07 | -1.34 | -.33 | -.19 | -.08 | -.77 | -1.12 | |
| Ku | -.04 | .42 | .25 | -.10 | .13 | .63 | .13 | -.10 | -.03 | -.49 | .25 | .13 | -.32 | -.31 | .43 | -.06 | 2.70 | -.24 | -.35 | -.08 | .94 | 1.14 | |

* p<.05, ** p<.01, *** p<.001

1: warmth & involvement(mother), 2: reasoning/induction(mother), 3: democratic participation(mother), 4: Good natured/easy going(mother), 5: warmth & involvement(father), 6: reasoning/induction(father), 7: democratic participation(father), 8: Good natured/easy going(father), 9: Verbal hostility(mother), 10: Corporal punishment(mother), 11: Non-reasoning, punitive strategies(mother), 12: Directiveness(mother), 13: Verbal hostility(father), 14: Corporal punishment(father), 15: Non-reasoning, punitive strategies(father), 16: Directiveness(father), 17: Self-esteem, 18: Sense of community(1), 19: Sense of community(2), 20: Sense of community(3), 21: Happiness, 22: Life satisfaction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와 측정모형 검증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2개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3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174, N=1,172)=1175.578, p<.001, TLI=.901, CFI=.918, RMSEA=.070$ (90% 신뢰구간=.066~.074), SRMR=.050으로 확인되어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부하량,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5 이상,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7 이상으로 확인되어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AVE값과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AVE값이 모두 큰 것으로 확인되어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5].

3.2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스타일,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주관적 안녕감 간 구조적 관계를 Fig. 1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hi^2(df=189, N=1,172)=1217.885, p<.001, TLI=.905, CFI=.922, RMSEA=.068$ (90% 신뢰구간=.065~.072), SRMR=.048로 확인되어 모형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자아존중감($\beta=.12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공동체 의식, 주관적 안녕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은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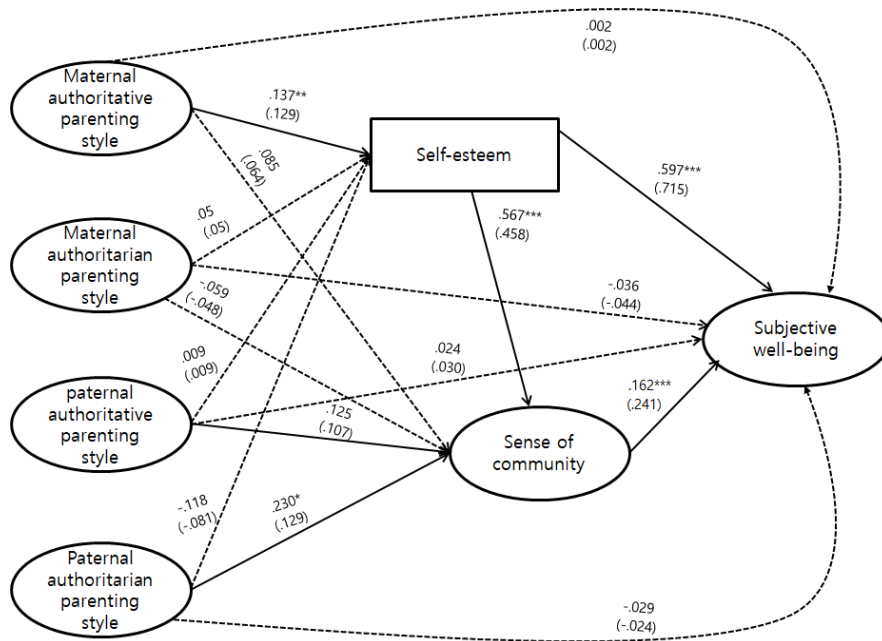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공동체 의식($\beta=.10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은 공동체 의식($\beta=.12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자아존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1,172)

| Latent variable | Measurement variable | b | S.E. | C.R. | β | AVE | CR |
|--|------------------------------------|-------|------|-----------|---------|-----|-----|
| M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 Warmth & involvement | 1 | | | .829 | .88 | .97 |
| | Reasoning/induction | .832 | .029 | 28.753*** | .770 | | |
| | Democratic participation | .611 | .027 | 23.03*** | .645 | | |
| | Good natured/easy going | .868 | .027 | 32.43*** | .855 | | |
| paternal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 Warmth & Involvement | 1 | | | .846 | .87 | .96 |
| | Reasoning/Induction | .848 | .026 | 32.021*** | .800 | | |
| | Democratic Participation | .658 | .027 | 24.583*** | .661 | | |
| | Good Natured/Easy Going | .913 | .025 | 36.786*** | .891 | | |
| Maternal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Verbal hostility | 1 | | | .804 | .78 | .93 |
| | Corporal punishment | 1.073 | .042 | 25.775*** | .753 | | |
| | Non-reasoning, punitive strategies | .905 | .033 | 27.054*** | .791 | | |
| | Directiveness | .581 | .034 | 17.199*** | .521 | | |
| Paternal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 Verbal hostility | 1 | | | .553 | .76 | .93 |
| | Corporal punishment | 1.5 | .08 | 18.641*** | .819 | | |
| | Non-reasoning, punitive strategies | 1.571 | .087 | 18.003*** | .761 | | |
| | Directiveness | 1.584 | .086 | 18.377*** | .793 | | |
| Sense of community | Sense of community(1) | 1 | | | .808 | .75 | .90 |
| | Sense of community(2) | 1.099 | .042 | 26.197*** | .812 | | |
| | Sense of community(3) | .897 | .037 | 24.422*** | .735 | | |
| Subjective well-being | Happiness | 1 | | | .935 | .89 | .94 |
| | Life satisfaction | .772 | .049 | 15.88*** | .680 | | |

* p<.05, ** p<.01, *** p<.001



*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중감은 공동체 의식($\beta=.458$), 주관적 안녕감($\beta=.71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은 주관적 안녕감($\beta=.24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 검증(bootstrapping, $n=5,000$) 결과,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이 주관적 안녕감($b=.108$, 95% 신뢰구간=.036~.182)에 미치는 전체 매개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Table 4와 같이 총 4개의 개별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Indirect effects in the model

| Path | b | Bias-corrected 95% CI |
|---|--------|-----------------------|
| Maternal authoritative→Self-esteem→Sense of community→Subjective well-being | .013** | .004~.024 |
| Maternal authoritative→Self-esteem→Subjective well-being | .082** | .022~.141 |
| Paternal authoritative→Sense of community→Subjective well-being | .020* | .002~.041 |
| Paternal authoritarian→Sense of community→Subjective well-being | .037* | .009~.074 |

* $p<.05$, ** $p<.01$

3.3 다집단 경로분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먼저, 형태동일성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χ^2 ($df=189$, $N=576$)=709.018, $p<.001$, TLI=.903, CFI=.920, RMSEA=.069, SRMR=.053,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상)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χ^2 ($df=189$, $N=560$)=693.895, $p<.001$, TLI=.901, CFI=.919, RMSEA=.069, SRMR=.050으로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χ^2 ($df=378$, $N=1,136$)=1402.914, $p<.001$, TLI=.902, CFI=.920, RMSEA=.049, SRMR=.053으로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동일성이 수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 Model | χ^2 | df | TLI | CFI | SRMR | RMSEA(90% CI) |
|------------------------|-------------|-----|------|------|------|-----------------|
| Configural invariance | 1402.914*** | 378 | .902 | .920 | .053 | .049(.046~.052) |
| Full metric invariance | 1415.237*** | 393 | .906 | .920 | .053 | .048(.045~.051) |
| Structural invariance | 1431.245*** | 408 | .909 | .920 | .054 | .047(.044~.050) |

* $p<.05$, ** $p<.01$, *** $p<.001$

Table 6.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 Paths | Low | | High | | $\Delta \chi^2$ | Δdf |
|--|---------|---------|---------|---------|-----------------|-------------|
| | b | β | b | β | | |
| Maternal authoritative→Self-esteem | .114 | .103 | .162* | .158 | .204 | 1 |
| Paternal authoritative→Self-esteem | -.049 | -.048 | .064 | .073 | 1.654 | 1 |
| Maternal authoritarian→Self-esteem | .036 | .034 | .066 | .07 | .07 | 1 |
| Paternal authoritarian→Self-esteem | -.224* | -.141 | .016 | .012 | 2.512 | 1 |
| Maternal authoritative→Subjective well-being | -.033 | -.035 | .023 | .028 | .682 | 1 |
| Paternal authoritative→Subjective well-being | .028 | .033 | .017 | .024 | .04 | 1 |
| Maternal authoritarian→Subjective well-being | -.037 | -.041 | -.033 | -.045 | .002 | 1 |
| Paternal authoritarian→Subjective well-being | -.036 | -.026 | -.018 | -.018 | .034 | 1 |
| Maternal authoritative→Sense of community | .137 | .104 | .088 | .065 | .13 | 1 |
| Paternal authoritative→Sense of community | .146 | .121 | .097 | .084 | .198 | 1 |
| Maternal authoritarian→Sense of community | -.044 | -.035 | -.018 | -.014 | .036 | 1 |
| Paternal authoritarian→Sense of community | .293* | .156 | .155 | .091 | .544 | 1 |
| Self-esteem→Sense of community | .535*** | .451 | .634*** | .481 | 1.777 | 1 |
| Sense of community→Subjective well-being | .187*** | .259 | .15*** | .247 | .907 | 1 |
| Self-esteem→Subjective well-being | .621*** | .728 | .544*** | .681 | 3.048 | 1 |
| All strains | | | | | 16.008 | 15 |

* $p<.05$, ** $p<.01$, *** $p<.0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 집단과 (상) 집단 간에 요인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형태동일성 모형을 비교한 결과, χ^2 값 차이가 없었으며 [$\Delta\chi^2(15) = 12.323(p > .05)$], TLI와 RMSEA 값 차이 ($\Delta TLI = .004$, $\Delta RMSEA = -.001$) 또한 없기 때문에 완전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χ^2 값 차이가 없었으며 [$\Delta\chi^2(15) = 16.008(p > .05)$], TLI와 RMSEA 값 차이 ($\Delta TLI = .003$, $\Delta RMSEA = -.001$) 또한 없기 때문에 구조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의 경로계수 크기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4. 논의 및 결론

부모의 양육스타일은 자녀가 자신과 타인, 공동체에 대한 스키마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각 부모 개인 내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4],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가 지각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조적 관계에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스타일과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은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24] 및 친사회적 행동[27]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인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6]. 애정, 관여, 이성/유도, 민주적 관계, 친절/편안함의 특징을 보이는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지지, 신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 평가를 이끌 수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25].

본 연구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스타일과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 모두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타일과 달리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은 자신에 대한 관점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의미하는 공동체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부정적인 관련성[29]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 또한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vrić과 Naterer[4]는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권위적 양육스타일과 혼합될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권위적,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모두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결합할 경우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 체제 등을 학습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는 시기인데[57 재인용], 행동 감독, 행동 조절 및 통제를 내포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공동체의 규칙, 체제 등을 학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공동체의 규칙, 체제 등을 학습해 나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으며, 부모의 영향력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 수준이 다른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스타일과 공동체 의식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자료에 기초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은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공동체 의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초·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58].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삶

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수준을 촉진할 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강화할 수 있다[59]. 높은 자아존중감에 기초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줌으로써[60]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스타일과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은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 특성 중 하나인 부모의 방임이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1]. 본 연구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경우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초등학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스타일의 중요성 인식을 고취하고 자녀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2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가 지각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의 경로계수 크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의 양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동체 의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상)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빈곤한 가정의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19], 본 연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 의식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모가 동일한 양육스타일을 보이더라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양육스타일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에 차별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양육스타일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어머니와 아

버지를 구분하지 않거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만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의 양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 교육에 대한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계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스타일을 확인하였는데, 자녀와 부모 간 부모의 양육스타일에 대한 지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종단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G. Chen, J. He, Z. Cai, X. Fan,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body apprecia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Exploring the mediating roles of dispositional mindfulness and self-compass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19, 105698, 2020.
DOI: <https://doi.org/10.1016/j.childev.2020.105698>
- [2] M. Pinquart,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28, No.3, pp.475-493, 2016.
DOI: <https://doi.org/10.1007/s10648-015-9338-y>
- [3] M. Hoeve, J. S. Dubas, V. I. Eichelsheim, P. H. van der Laan, W. Smeenk, J. R. M. Gerr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7, pp.749-775,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802-009-9310-8>
- [4] M. Lavrič, A. Naterer, "The power of authoritative parenting: A cross-national study of effects of exposure to different parenting styles on life

-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16, 105274, 2020.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274>
- [5] R. P. Zhang, B. Y. Bai, S. Jiang, S. Yang, Q. Zhou, “Parenting styles and internet addiction in Chinese adolescents: Conscientiousness as a mediator and teacher support as a moderato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101, pp.144-150, 2019.
DOI: <https://doi.org/10.1016/j.chb.2019.07.019>
- [6] E. Flouri, A. Buchanan,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4, pp.141-153, 2004.
- [7] T. W. Chan, A. Koo, “Parenting style and youth outcomes in the UK”,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27, pp.385-399, 2011.
- [8] Q. Xie, W. Fan, P. Wong, F. M. Cheung, “Personality and parenting style as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secondary students”,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Vol.25, No.3, pp.423-432, 2016.
- [9] Y. Kawabata, L. R. A. Alink, W. L. Tseng, M. H. van IJzendoorn, N. R. Crick,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associated with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nceptu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Vol.31, No.4, pp.240-278, 2011.
DOI: <https://doi.org/10.1016/j.dr.2011.08.001>
- [10] S. H. Goodman, H. F. M. Simon, A. L. Shambraw, C. Y. Kim, “Parenting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in mothers and children’s function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Vol.23, pp.427-460, 2020.
DOI: <https://doi.org/10.1007/s10567-020-00322-4>
- [11] N. Darling, L. Steinberg,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Vol.113, No.3, pp.487-496, 1993.
- [12] D. Baumrind,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Vol.75, No.1, pp.43-88, 1967.
- [13] D. Baumrind, R. E. Larzelere, E. B. Owens, “Effects of preschool parents’ power assertive patterns and practi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Science and Practice*, Vol.10, No.3, pp.157-201, 2010.
DOI: <https://doi.org/10.1080/15295190903290790>
- [14] D. Baumrind,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and adolescent autonomy”,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108, pp.61-69, 2005.
- [15] E. E. Maccoby, J. A. Martin,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1-101)”, New York: Wiley, 1983.
- [16] M. Matejevic, D. Jovanovic, M. Jovanovic, “Parenting style, involvement of parents in school activities and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Procedia-Social & Behavioral Sciences*, Vol.128, pp.288-293, 2014.
- [17] Y. Luo, F. Chen, X. Zhang, Y. Zhang, Q. Zhang, Y. Li, Q. Zhou, Y. Wang, “Profiles of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Chinese families: Relations to preschoolers’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21, 105787, 2021.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787>
- [18] C. McKinney, K. Renk, “A multivariate model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variables in early adolescenc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42, No.4, pp.442-462, 2011.
DOI: <https://doi.org/10.1007/s10578-011-0228-3>
- [19] J. Yang, X. Zhao,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middle schools in Chin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13, 105017, 2020.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017>
- [20] Bitajilchi, F. R. Kargar, M. K. Ghoreishi,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yles of overstressed mothers with their children’s self-estee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82, pp.496-501, 2013.
- [21] M. S. Jeong, “The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 on adolescent’s self-esteem”, *Forum For Youth Culture*, No.25, pp.139-170, 2010.
- [22] M. H. Min,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facto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3, No.4, pp.101-126, 2018.
DOI: <https://doi.org/10.16978/ecec.2018.13.4.005>
- [23] E. T. Lee, E. K. Lea,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elf-esteem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7, No.1, pp.127-146, 2020.
- [24] A. Milevsky, M. Schlechter, S. Netter, D. Keehn,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16, No.1, pp.39-47, 2007.
DOI: <https://doi.org/10.1007/s10826-006-9066-5>
- [25] J. W. K. Yeung, C.-K. Cheung, S. Y. C. L. Kwok, J. T. Y. Leung, “Socialization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ing and its discrepancy o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5, pp.1980-1990, 2016.
- [26] N. D. Saltali, H. M. İmir, “Parenting styles as a predictor of the preschool children’s social behaviours”, *Participatory Educational Research*, Vol.5, No.2, pp.18-37, 2018.
- [27] G. Carlo, R. M. B. White, C. Streit, G. P. Knight, K. H. Zeiders,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 styles, prosocial behaviors, and academic outcomes in U.S. Mex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89, pp.577-592, 2018.
DOI: <https://doi.org/10.1111/cdev.12761>
- [28] A. L. Azimi, S. Vaziri, F. L. Kashani,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yle and child’s aggressive behaviour”, *Procedia-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Vol.69, No.1, pp.1276-1281, 2012.
- [29] S. Yazdani, G. Daryei, “Parenting style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gifted and normal adolescents”, *Pacific Science Review B: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2, pp.100-105, 2016.
DOI: <https://doi.org/10.1016/i.psr.2016.09.019>
- [30] N. Lekes, I. Gingras, F. L. Philippe, R. Koestner, J. Fang, “Parental autonomy-support, intrinsic life goals,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China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9, No.8, pp.858-869,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964-009-9451-7>
- [31] R. F. Baumeister, J. D. Campbell, J. I. Krueger, K. D. Vohs,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Vol.4, No.1, pp.1-44, 2003.
- [32] S. B. Jung, J. T. Kim, E. S. Kim,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among physical competence, self-esteem,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1, No.3, pp.327-343, 2016.
DOI: <https://doi.org/10.21097/ksw.2016.08.11.3.327>
- [33] U. K. Moksnes, G. A. Espne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Gender and age as potential moderators”, *Quality of Life Research*, Vol.22, No.10, pp.2921-2928, 2013.
DOI: <https://doi.org/10.1007/s11136-013-0427-4>
- [34] B. Duy, M. A. Yildiz,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ubjective well-being”, *Current Psychology*, Vol.38 No.6, pp.1456-1463, 2019.
DOI: <https://doi.org/10.1007/s12144-017-9698-1>
- [35] K. Wang, F. Kong, “Linking trait mindfulness to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and self-esteem”, *Child Indicators Research*, Vol.13, pp.321-335, 2020.
DOI: <https://doi.org/10.1007/s12187-019-09698-4>
- [36] S. Yao, J. Chen, X. Yu, J. Sang, “Mediator roles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betwee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Current Psychology*, Vol.36, No.3, pp.585-592, 2017.
DOI: <https://doi.org/10.1007/s12144-016-9447-x>
- [37] W. Chen, D. Zhang, Y. Pan, T. Hu, G. Liu, S. Luo,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08, pp.98-102, 2017.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6.12.009>
- [38] D. W. McMillan,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pp.6-23, 1986.
- [39] J. Guzman, J. Alfaro, J. Varela,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 Chilean adolescent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Vol.14, pp.589-601, 2019.
DOI: <https://doi.org/10.1007/s11482-018-9615-2>
- [40] G. Prati, E. Cicognani, C. Albanesi, “The impact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school, social skills, and exposure to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on students’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40, No.2, pp.637-651, 2018.
DOI: <https://doi.org/10.1007/s11205-017-1808-9>
- [41] G. Prati, E. Cicognani, “School sense of community as a predictor of well-being amo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Current Psychology*, Vol.40, pp.939-943, 2021.
DOI: <https://doi.org/10.1007/s12144-018-0017-2>
- [42] H. S. Park,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on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community among Korean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5, No.1, pp.555-576, 2019.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9.25.1.555>
- [43] M. H. Choi, “The effects of neglectful-abusive rearing styles of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 children: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waren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2, pp.59-92, 2016.
DOI: <https://doi.org/10.14816/sky.2016.27.2.59>
- [44] W. S. Yun, “The effect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on parenting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22, No.1, pp.137-172, 2011.
- [45] S. H.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depression and maternal parenting on young children’s negative peer play behavio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8, No.5, pp.317-338, 2014.
- [46] H. W. Song, S. Y.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verty level,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6, No.3, pp.651-672, 2012.
- [47] K. E. Lee, J. R. Le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self-esteem: Mediation roles parenting behavior and domestic violenc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12, No.3, pp.1-15, 2008.
- [48] H. J. Oh, K. S. Kim,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luence that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influen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mediated self-concep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 Instruction, Vol.19, No.16, pp.23-38,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16.23>
- [49] W. Chen, G. Niu, D. Zhang, C. Fan, Y. Tian, Z. Zhou,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adolescents: Analysis of self-esteem as a mediator and optimism as a moder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95, pp.105-109, 2016.
- [50] J. Yang, X. Zhao,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middle schools in Chin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13, 105017, 2020.
DOI: <https://doi.org/10.1016/i.childyouth.2020.105017>
- [51] A. R. Han, "The effect of parental life satisfaction, positive parenting, self-esteem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between low-income and ordinary-income of the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5, pp.1-24,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05.25.5.1>
- [52] <http://panel.kicce.re.kr>
- [53] C. C. Robinson, B. Mandlco, S. F. Olsen, C. H. Hart,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Vol.77, No.3, pp.819-830, 1995.
- [54]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55] E. M. Yeon, "Relations among parental education involvement, children's career maturity,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Difference analysis of experience of victimiz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1, pp.433-456, 2018.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8.18.21.433>
- [56] L. B. Whitbeck, R. L. Simons, D. C. Rand, F. O. Lorenz, S. Huck, G. H. Jr. Elder, "Family economic hardship,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54, pp.353-363, 1991.
- [57] J. Y. Kim, K. Y. Jang, "The effect of community spi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veruse of smart media and cyberbully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 Counseling*, Vol.9, No.2, pp.165-184, 2019.
- [58] E. M. Yeon, H. S. Choi,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strength, relationship with peer and teachers, self-esteem,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 Multi-group analysis across school lev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5, pp.43-55,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5.43>
- [59] M. R. Leary, E. S. Tambor, S. K. Terdal, D. L. Downs,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 No.3, pp.518-530,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8.3.518>
- [60] S. J. Jeong, S. E. Kim, I. J. Chung, "Effect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elf-esteem of children in community child centers on their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9, No.6, pp.15-25, 2018.
DOI: <https://doi.org/10.5723/kics.2018.39.6.15>
- [61] J. H. Noh, H. N. Song,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between parents' neglect and adolescents' satisfaction in life: Intermediary roles of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5, No.3, pp.193-208, 2019.
DOI: <http://dx.doi.org/10.33770/JEBD.35.3.9>

추연구(Youn Gu Chu)

[정회원]



- 2003년 8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문학 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발달장애아동의 교수-학습방법, 장애아 진단과 평가

최효식(Hyo-Sik Choi)

[정회원]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